

“광주환경공단, 경영평가 최하위·입찰 신뢰성 결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단 지적
박미정 “관리직 등 여성 비율 저조”
서용규 “평가 가점·공고 등 부적절”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환경공단의 경영평가 하락과 입찰 계약 신뢰성·공정성 결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1일 광주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실적으로 지방공기업의 등급을 매기는 행안부의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광주환경공단이 최하위 순위인 다등급 6위를 받았다”며 “평가받은 6곳의 광역시설 중에서 사실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셈이다”고 질타했다.

이번 행안부 경영평가는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공공정책 추진, 경영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대상은 총 262개 지방공기업으로 광역 환경시설공단은 6곳이다. 평가결과(가·라등급) △가등급 부산 △나등급 대구 △다등급 대전, 인천, 서울, 광주 순으로 광주환경공단의 경우 6위지만 낙제점은 면했다.

박 의원은 “광주환경공단의 경영평가

결과, 2022년 3위, 2023년 5위에 이어 올해는 6위로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2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관리직이나 각급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저조, 일·가정양립을 위한 연차휴가 사용 저조 등의 지적이 매년 나오고 있다”며 “전문가에 진단을 받아 조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직원들의 노력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실태평가에서는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다”면서 “행안부 경영평가 하락으로 직원들의 성과급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환경공단이 추진중인 효천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사업 입찰 계약과 관련해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이날 행감에서 ‘효천하수처리장 분리막 및 유닛 제작 구매 설치 계약’과 관련, 계약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남구 임암동 소재 효천하수처리장은 2013년 준공해 10년 주기 분리막 교체에 따라 DMBR 공법으로 4000㎡씩 4개 계열 중 1계열은 최근 완료됐으며, 2·3계열은 현재 계약 추진중에 있다.

서 의원은 “자재보유확인서와 자재 수급 및 공급 약속서의 확보율에 따라 ‘자재 확보(6점)’ 평가가점이 근거와 공정성의 입각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규정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따져 물었다.

이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동일 사업 관련해 타 지자체도 이 규정을 두고 있

다”는 공단측의 해명에 서 의원은 “타 지자체가 그렇게 했다고 그 제도가 무조건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30억원대 규모의 2·3계열 분리막 교체 사업과 관련해 지난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공고한 점에 대해서도 “하필이면 추석 연휴 기간에, 공고일인 12일을 제외하면 13일 단 하루 뿐이

다”며 “나머지는 연휴 기간인데 굳이 이 기간에 했어야 하는지 의문으로 공단의 어떠한 해명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와 함께 모든 계약시 공정성과 투명성에 한 치의 오차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공공비축미 수매

식량위기 대응 및 쌀값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 수매가 11일 광주 북구 북광주농협 우치지점에서 북구지역 3개동(건국, 석곡, 동림동) 농지에서 생산된 미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김 육상양식 산업 선점 나선다’

■1면서 계속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과 해수부의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동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둔 만큼 해남군과 손을 잡고 김 산업을 전남의 주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해남 황산지구의 경우 김 생산 및 가공과 수출 분야 성장 여건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선정됐으며, 해남군은 황산지구에 친환경 지주식 유기 인종 김 브랜드 개발 및 가공에 착수하는 등 김 산업 분야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해남군, CJ 제일제당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개발(R&D)에 참여할 대학을 모색하는 등 해당 공모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남도는 현재 인천대학교와 컨소시엄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해조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전남대학교와 목포대학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옥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는 전남 수산업의 주력 품목이자 산업적 활용성이 매우 높아 전남 해조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

한 만큼 해수부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장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양식장 개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제표준에 맞춰 육상 양식에 적합한 신종종 개발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가공과 유통이 이뤄진다면 김 생산량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 공모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김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 공모 추진에 나서고 있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우선 반영한 60억원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기관 한 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거주 청년들 “일자리 정책 가장 필요”

시의회, 청년정책 여론조사

광주지역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727명을 대상으로 광주시 청년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청년 중 46.6%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정책도 일자리 정책(69.5%)을 선택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3.2%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정책 홍보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홈페이지, 문자 알림서비스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 청년정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만족도는 주거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67.28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자리 정책(61.75점)과 교육정책(60.48점)이 뒤를 이었다. 정성현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it's true

balanced

PERON

엑스페론

밸런스 라인